

## 케인스의 마지막 임무\*

송 의 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런던의 초상화 미술관에는 경제학자 케인스와 부인 리디아가 사이 좋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걸려 있다. 담배 광고로 쓰기에 딱 좋은 그림이다. 케인스가 장수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중년 이후 졸골 심장병에 시달렸지만 주치의는 그의 병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부인은 남편과 즐담배를 함께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으니. 말년의 케인스는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런 그가 꺼져가는 생명을 붙들고 미국을 오간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금융을 설계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쇠퇴일로에 있는 영국을 대표하기 위해서였다.

케인스는 국제금융이 관습의 우매함과 시장에 대한 맹신에서 해방되기를 갈구했다. 화폐가 금의 족쇄에서 풀려나 완전고용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를 원했지만 동시에 인간의 지혜에 의하여 적절히 통제되기를 희망했다. 그가 세계중앙은행을 설립하고 방코(bancor)라는 세계화폐를 발행할 것을 제안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보다 덜 이해되고 있는 점은 방코가 당좌대월의 형식으로 발행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즉 각 회원국이 마이너스 통장을 부여받고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일정한 한도 내에서 방코를 자유롭게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회원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흑자가 적정 한도를 넘어서면, 즉 요즘 말로 글로벌 불균형이 발생하면, 조정의 부담을 적자국과 흑자국이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도록 하였다. 적자국은 자신의 화폐를 방코에 대해 절하하며 긴축정책을 취하고, 흑자국은 반대로 자신의 화폐를 방코에 대하여 절상함과 동시에 팽창정책을 취하게 하는 방식을 추구하였다.

---

\* 본 원고는 2010년 2월 6일 중앙일보 중앙시평에 게재된 신문칼럼임.

케인스 안은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미국 측 협상대표였던 화이트와 미국의 금융가들은 케인스 안이 과다한 통화 공급을 유발할 위험이 있음을 경계했다. 그리고 적자국의 고통스러운 긴축정책을 통하여 불균형을 해소하는 전통적 방식을 선호하였다. 전기 작가 시텔스키는 케인스의 구상이 뜨거운 애국심의 발로였다고 주장한다. 전쟁으로 금을 탕진하고 미국에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전후 복구 사업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영국이 흑자국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모를 최소화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화이트는 영국을 궁지에 몰아넣어 경쟁 화폐인 파운드를 약화시키고 축적한 막대한 금을 통해 달러본위제도를 굳히기를 원했고, 급세 재미있는 음모론에 너무 경도되는 것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양측의 주장에 국익을 위협이 없었다고 하기도 힘들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 케인스와 화이트 간에 오갔던 협력과 알력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서도 흥미로운 일이지만 작금의 세계 금융위기와 이를 둘러싼 미·중 간의 설전을 음미해보는 데에도 소용이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0년의 국제 금융질서는 케인스와 화이트가 고심했던 통화 남발과 글로벌 불균형의 방지라는 두 책무를 달성하는 데 크게 실패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은 자국의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월스트리트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기축통화인 달러의 양을 적절히 통제하는 세계중앙은행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했다. 동시에 기축통화 발행국이라는 특권은 미국이 강조했던 적자국의 의무, 즉 긴축의 고통을 통하여 경상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의무에서 미국을 면제시킴으로써 글로벌 불균형을 조장했다.

이제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은 흑자국 중국이 위안화 절상과 내수팽창 정책을 통하여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0여 년의 세월에 입장이 뒤바뀐 미국이 비로소 케인스의 지혜를 이해하게 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반면 날로 기세가 등등해지고 있는 중국에서는 중앙은행장과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앞다투어 달러를 두드려대고 있다. 위안화에 대한 절상 압력은 미국의 책임 회피에 불과하며 금본위제도로 복귀하거나 아니면 케인스의 주장대로 세계통화를 발행함으로써 달러의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케인스가 금본위제도의 종결을 위해 평생을 싸웠으며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위안화의 절상을 지지했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까?

지난 다보스 포럼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서 세계 금융안정망 구축을 제안했다고 한다. 환영하고 싶은 일이다. 그리고 G20에서 한국의 역할은 미국과 중국의 아전인수에서 벗어나 케인스의 세계주의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